

설 명절,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교통상황 관리에 만전

- 국토부, 주요 교통 현장 찾아 특별교통대책 점검 및 관계자 격려 - - 3월 GTX-A 수서~동탄 구간 개통, 차질 없이 준비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월 8일 대전역, 한국철도공사 운영상황실, 수서역, GTX-A 공사현장,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및 공항철도 검안역 등 주요 교통 현장을 찾아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였다.

- 진현환 제1차관은 오후 2시 대전역을 방문하여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보고 받은 후, “이번 설 연휴 기간에 약 2,800만 명의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,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차질 없이 대책을 시행할 것”을 당부하였다.
 - 아울러, 진 차관은 한국철도공사의 주요 철도운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운영상황실을 찾아 철도 관제현황을 점검한 뒤, “안전을 최우선 하여 관제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,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응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”을 강조하였다.
 - 또한, “설 연휴 기간 예매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시스템 보안을 24시간 철저히 모니터링 할 것”을 당부하는 한편, “국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철도 종사자로서 설 연휴에도 현장을 지키는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”며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.

- 백원국 제2차관은 오후 3시부터 수서역을 방문하여 SR로부터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보고받은 뒤 SRT 열차운행 상황을 점검하고, GTX-A 승강장 공사현장도 방문하여 수서~동탄 구간 개통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.
 - 백 차관은 “설 연휴에 평소보다 많은 이용객이 몰리는 만큼,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”을 당부하였으며, “향후에는 SRT와 GTX-A가 선로를 함께 사용하는 만큼, 각 운영사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”을 강조하였다.

- 또한, 3월말 개통을 목표로 종합시험운행을 진행 중인 GTX-A 차량에 탑승하여 시운전 현황을 점검하면서, “국민과 약속한 일정에 맞춰 GTX-A 수서~동탄 구간이 안전하게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자 모두가 사명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- 이후, 백 차관은 오후 5시 10분경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방문할 예정이다. 백 차관은 터미널 관계자 등으로부터 고속버스 특별교통대책을 보고 받은 후, “국민들이 안심하고 고속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차량은 물론 대합실,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필요”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.
- 아울러, “장시간 운전에 따른 과로, 과속,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전교육과 건강관리를 철저히 관리해 줄 것”도 당부할 예정이다.
- 한편, 같은날 오후 2시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공항철도 검암역을 방문하여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보고받고,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.
- 강 위원장은 공항철도 관계자로부터 특별교통대책을 보고받은 후, “해외 여행객의 숫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*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, 막차 운행 구간 연장 및 임시열차 추가 투입 등 수송력 증강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”을 강조하였다.
- * 여행업계 : 올해 설명절 해외 출국자수는 팬데믹 이전 최대였던 하루 평균 20.7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
- 또한, “평소 출·퇴근 시 계양역 등 혼잡도가 높은 역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열차장애, 운행지연 등의 우려가 없는지 점검하여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- 이어서, 강 위원장은 공항철도 관계자들에게 “현 정부 공약사업인 공항철도-9호선 직결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필요”가 있다고 강조하면서, 사업의 한 축인 공항철도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.

2024. 2. 8.

국토교통부 대변인